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주가 현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전일 종가 (pt, 원)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					주가 추이	
					1W	1M	3M	6M	12M		YTD
KOSPI			5,495	4,352,651	8.8	-1.6	20.7	54.8	136.0	30.4	
통신서비스			423	39,516	2.7	4.1	28.0	26.8	37.4	27.0	
SK텔레콤(017670)	BUY(M)	100,000(M)	81,600	17,527	6.8	6.7	53.7	50.0	46.0	52.5	
KT(030200)	BUY(M)	73,000(M)	59,100	14,894	-2.2	0.2	12.8	15.4	22.2	12.4	
LG유플러스(032640)	BUY(M)	19,000(M)	15,880	6,826	2.3	5.2	9.7	4.5	52.7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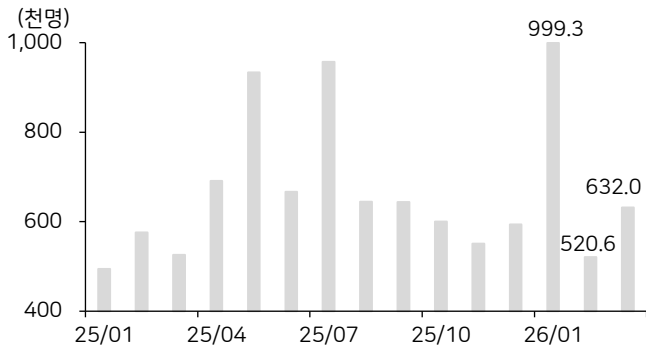
## 주간 Comment(03/31~04/07)

### Key Takeaway: 정점을 지나 안정 궤도에 진입

■ 지난 한주간 통신업종은 +2.7%(vs KOSPI +8.8%)로 시장 수익률을 하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 및 테크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 통신업종은 소외. 기관은 SKT와 KT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은 SKT와 LGU+ 순매수, KT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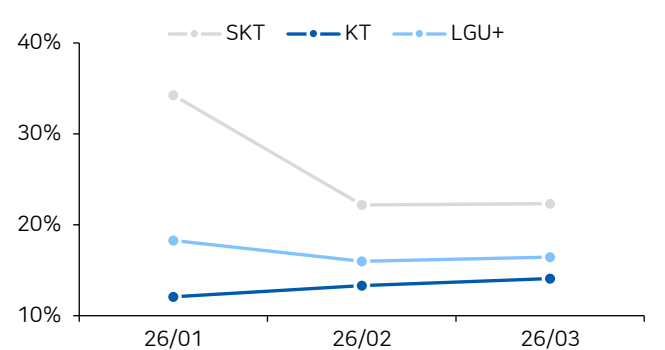
■ 3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자수 Review: 1월 KT 위약금 면제 영향으로 급증했던 번호이동 수요는 3월 기준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 1월 번호이동 건수는 99.9만명(+68.3% MoM, +102.1% YoY)까지 급증했으나, 3월에는 63.2만명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이는 위약금 면제 및 보조금 등 이벤트 효과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 실제로, KT의 위약금 면제가 있었던 1월 SKT M/S는 34.2%에서 3월 22.3%로 감소. 주목해야할 점은 3월 번호이동 건수 측면에서, 2월(52.1만명) 대비해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수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 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출시에 따른 단말시장 확대에 기인. 특히, 3월 번호이동 순증 YoY 증가폭이 제일 큰 KT 부각. 3월 번호이동 순증 건수는 SKT +0.8만명 YoY, LGU+ +0.2만명 YoY와 대비해, KT는 +1.4만명 YoY. 3월 번호이동 M/S는 SKT 22.3%, KT 14.1%, LGU+ 16.5%를 기록, KT M/S는 1월 12.1% 대비 평년 수준으로 회복

번호이동자수 전체 합계 추이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통신사별 번호이동 가입자 수 M/S 추이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Valuation

	PER(x)		PBR(x)		ROE(%)		DPS(원)		D Yield(%)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KOSPI	8.1	7.0	1.5	1.3	-	-	-	-	1.6	1.8
통신서비스	11.3	10.5	1.0	0.9	-	-	-	-	4.5	4.9
SK텔레콤	14.3	13.3	1.4	1.3	9.8	10.3	3,466	3,567	4.2	4.4
KT	10.0	9.3	0.8	0.8	8.0	8.3	2,515	2,656	4.3	4.5
LG유플러스	9.2	8.5	0.7	0.7	7.8	8.2	705	738	4.4	4.6

## 2026E 실적

(십억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추정치	컨센서스	차이	추정치	컨센서스	차이	추정치	컨센서스	차이
영업이익	17,752	17,734	0.1	27,714	27,874	-0.6	15,698	15,717	-0.1
영업이익	1,838	1,864	-1.4	2,039	2,179	-6.4	1,142	1,132	0.9
세전이익	1,634	1,647	-0.8	1,946	2,096	-7.2	985	937	5.1
지배순이익	1,228	1,230	-0.2	1,376	1,491	-7.7	765	739	3.5

## 수급 현황

(십억원, %)	개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외인 지분율
	1W	YTD	1W	YTD	1W	YTD	
SK텔레콤	-55.6	-604.7	7.9	278.4	50.2	278.4	38.9
KT	-6.3	-126.9	7.1	138.7	-0.4	-8.7	49.0
LG유플러스	-2.4	-42.9	-13.4	43.2	15.8	-0.2	41.7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News Flow ▲ Top 3

순위	뉴스	관련 기업
NO.1	KT, 2027년 전자주총 도입, 주당 600원 배당	KT
NO.2	SKT, 휴대폰 가입자 1분기에 약 14만명 순증, 점유율 증가폭은 제한적	SKT
NO.3	LGU+, 5월 말 'U+모바일tv' 종료하고 IPTV 연계 사업 추진	LGU+

(No. 1)	<b>KT, 2027년 전자주총 도입, 주당 600원 배당</b> 4Q25 DPS 자사주 추가 매입	(26.03.31, 이데일리) <a href="https://tinyurl.com/mr4b3cu8">https://tinyurl.com/mr4b3cu8</a> - KT는 4Q25 DPS를 600원으로 결정(4/15 지급). 올해 9월까지 자사주 2,500억원 규모 추가 매입 계획. '27년부터 전자주총회 도입 - 자사주 보유 및 처분 승인 계획도 의결 안건으로 올려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Comment	- 박윤영 대표이사 선임안도 통과. KT는 새 대표 선임을 계기로 책임경영 체제를 정비하고 주주와의 소통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힘	
(No. 2)	<b>SKT, 휴대폰 가입자 1분기에 약 14만명 순증, 점유율 증가폭은 제한적</b> SKT 번이 +13.9만 MVNO로의 이탈	(26.04.01, 전자신문) <a href="https://tinyurl.com/y5sys4c9">https://tinyurl.com/y5sys4c9</a> - 1Q26 번호이동 시장에서 SKT 가입자 누적 순증 규모는 13.9만건. 동기간 LGU+ +4.8만명 순증, KT -23.8만명 순감 - MVNO로의 지속적 가입자 이탈로 SKT M/S는 39%대 기록 - 무선 점유율 40% 탈환은 3년 이상 장기 과제로 분류. 이에 따라 SKT의 무선시장 핵심 전략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
Comment	- 무리한 보조금 경쟁보다 고ARPU 가입자 유치를 통한 실질적 수익성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 - 알뜰폰 공용유심 출시 등 MVNO 친화적 정책을 전개해 자사 통신망 수익을 방어하는 현실적 대안 추진 중	
(No. 3)	<b>LGU+, 5월 말 'U+모바일tv' 종료하고 IPTV 연계 사업 추진</b> IPTV 연계 U+tv모바일	(26.04.06, 조선비즈) <a href="https://tinyurl.com/5xcb937n">https://tinyurl.com/5xcb937n</a> - 5월 말 U+모바일tv 서비스 종료, IPTV와 연계한 신규 서비스 'U+tv모바일'을 4월 말 선보일 계획 - 이로써 통신 3사 자체 운영 OTT 서비스 모두 철수. 실제 U+모바일tv의 MAU는 '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약 50% 이상 감소 - 신규 서비스는 소비 경험 강화(IPTV와 연결된 VOD)에 초점을 맞춤
Comment	- '25년 LGU+의 미디어 부문 실적은 IPTV 가입자는 573.9만명(+2.9% YoY)였지만, VOD 매출액 감소 영향으로 전체 IPTV 사업 매출 성장 제한	
	<b>갤럭시 S26 효과에 3월 번호이동 11만 명 증가</b> S26 MVNO 고객 증가	(26.04.01, 뉴스1) <a href="https://tinyurl.com/48tpntv">https://tinyurl.com/48tpntv</a> - S26 출시 효과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1.5% MoM 증가. 한편, 이동3사 → MVNO 이동 고객은 29.9만명(약 +21% MoM 증가) -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22% MoM 증가한 14.1만명, KT 번호이동 가입자는 +27.8% MoM 증가한 1.9만명, LGU+ 번호이동 가입자 +25% MoM 증가한 2.1만명을 기록. 이동3사에서 MVNO로 이동한 고객은 3월 기준 29.9만명(+21% MoM)으로 증가
Comment	-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6 시리즈가 번호이동 수치를 견인. 1월까지의 통신사 간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이 많았다면, 3월은 MVNO 순증으로 회귀하는 모습. 3월 기준 KT가 갤럭시 S26 사전예약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에 성공한 셈	
	<b>박윤영 대표, 취임 일성은 "AX 플랫폼 회사로 도약"</b> AX 전환	(26.03.31, 연합뉴스) <a href="https://tinyurl.com/4hrfms4m">https://tinyurl.com/4hrfms4m</a> - B2C와 B2B 영역 모두 AX 전환을 강조. 1) 단단한 본질과 2) 확실한 성장을 향후 경영 방향의 두 축으로 제시 - 6G, 위성, AI-RAN, 양자 보안 등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도하겠다고 언급
Comment	- B2B 영역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B2B AX'를 강화하겠다고 언급.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아우르는 End-to-End 사업 모델 구축할 예정	
	<b>LGU+, 해킹서버 고의 폐기' 의혹에 압수수색</b> APPM 1 서버	(26.04.03, 아시아경제) <a href="https://tinyurl.com/4m7ejp2d">https://tinyurl.com/4m7ejp2d</a> - 경찰은 서버 및 시스템 데이터와 OS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 '25년 7월 민관 합동조사에서 서버 폐기 사실 발각된 바 있음
Comment	- 정부는 LGU+가 APPM 1과 2 서버 가운데 '1 서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 LGU+ 측은 정보 유출 건을 침해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당국에 침해사고로 신고한 바 있음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 주가 현황(해외)

	전일 증가 (자국통화)	시가총액 (십억 자국통화)	수익률 (%)						주가 추이
			1W	1M	3M	6M	12M	YTD	
Verizon(VZ US EQUITY)	49	205	50.2	51.1	39.4	40.0	39.9	20.7	
AT&T(T US EQUITY)	28	198	29.0	28.6	23.7	25.6	25.7	14.0	
T-Mobile(TMUS US EQUITY)	199	219	210.0	221.6	196.3	225.5	242.5	-2.2	
China Mobile(941 HK EQUITY)	80	1,757	79.2	79.0	81.4	83.9	74.2	-2.0	
China Telecom(728 HK EQUITY)	5	570	4.8	5.1	5.4	5.3	5.3	-9.5	
China Unicom(762 HK EQUITY)	7	217	7.1	7.8	8.1	8.8	7.6	-9.0	
NTT(9432 JP EQUITY)	157	14,225	157.2	148.6	156.5	152.5	134.3	-0.4	
KDDI(9433 JP EQUITY)	2,764	11,573	2,723.5	2,629.3	2,645.6	2,361.3	2,242.7	2.0	
Softbank Corp.(9434 JP EQUITY)	217	10,412	211.1	206.5	211.2	211.8	190.7	1.1	
Rakuten(4755 JP EQUITY)	760	1,650	723.1	805.3	1,007.5	965.7	710.8	-24.3	
Deutsche(DTE GY EQUITY)	31	151	31.0	31.8	26.4	28.1	29.5	11.2	
Vodafone(VOD LN EQUITY)	115	27	113.3	108.3	103.3	82.4	62.2	16.4	
Telefonica(TEF SM EQUITY)	4	22	3.8	3.7	3.5	4.1	3.8	10.3	

## □ Valuation(해외)

	PER(x)		PBR(x)		ROE(%)		DPS(자국통화)		D Yield(%)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2026C	2027C
Verizon	10.0	9.4	1.9	1.8	19.0	19.3	2.8	3.0	5.7	6.0
AT&T	12.4	11.2	1.7	1.6	13.6	14.8	1.1	1.1	3.9	3.9
T-Mobile	18.8	14.7	3.8	3.8	21.3	27.4	4.1	4.6	2.1	2.3
China Mobile	10.8	10.4	1.0	1.0	9.6	9.7	4.9	5.1	7.0	7.3
China Telecom	11.9	11.3	0.8	0.8	6.9	7.3	0.3	0.3	6.5	7.0
China Unicom	9.3	8.8	0.5	0.5	5.2	5.4	0.5	0.5	7.3	7.9
NTT	12.5	11.9	1.3	1.2	10.1	10.4	5.3	5.4	3.4	3.4
KDDI	14.3	13.3	2.0	1.9	14.2	14.6	80.4	84.9	2.9	3.1
Softbank Corp.	18.4	17.4	3.7	3.5	20.5	20.1	8.8	8.9	4.1	4.1
Rakuten	-	-	2.1	2.1	-2.3	5.4	0.3	0.8	0.0	0.1
Deutsche	13.9	12.2	2.4	2.2	16.3	17.3	1.1	1.3	3.7	4.1
Vodafone	14.2	12.2	0.6	0.6	3.4	4.1	0.0	0.0	3.6	3.6
Telefonica	10.6	9.9	1.4	1.4	12.7	12.8	0.2	0.2	4.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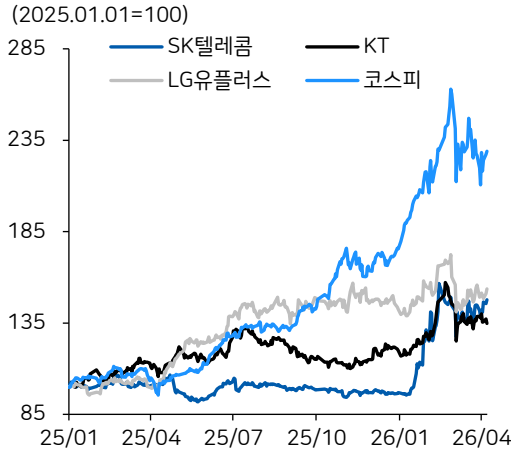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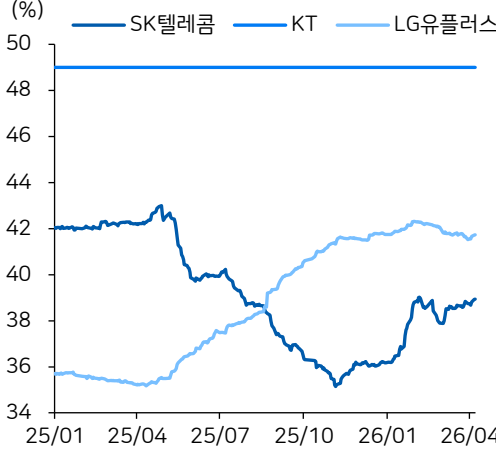


## 통신3사 주가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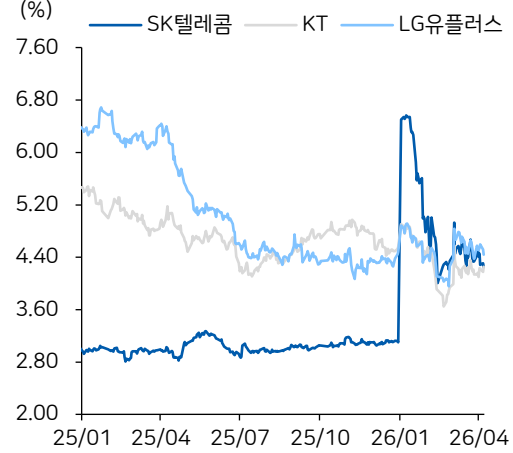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3사 외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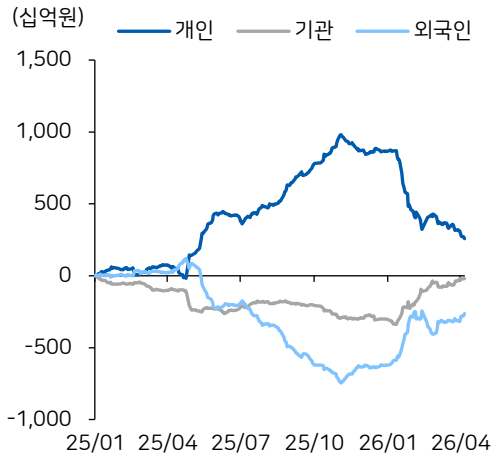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3사 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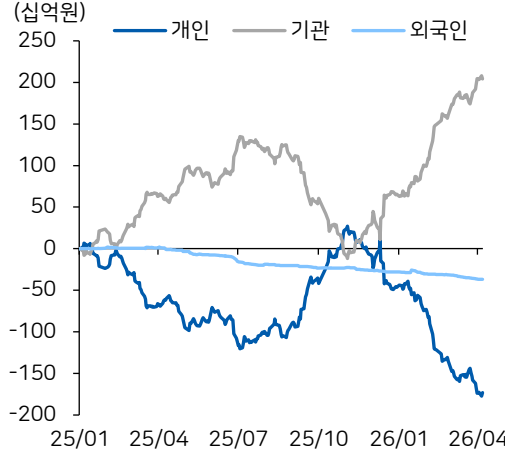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SK텔레콤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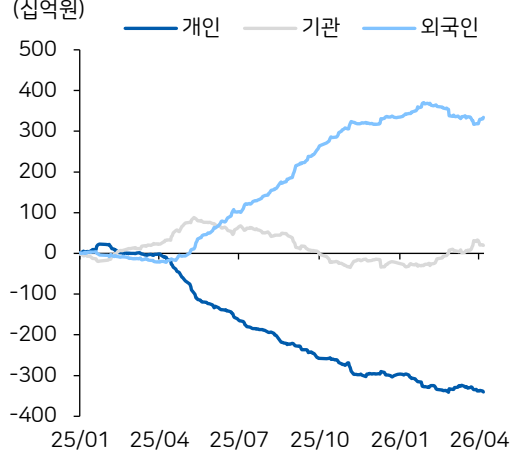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KT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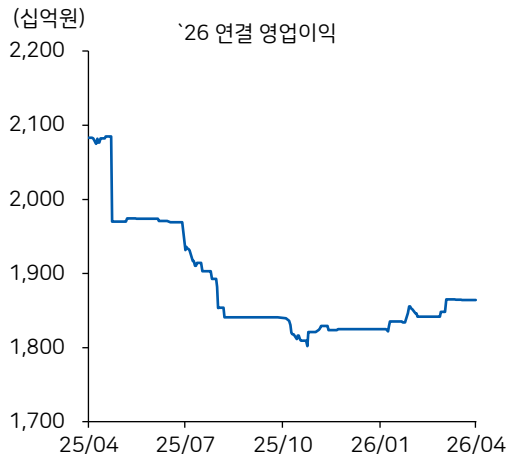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LG유플러스 누적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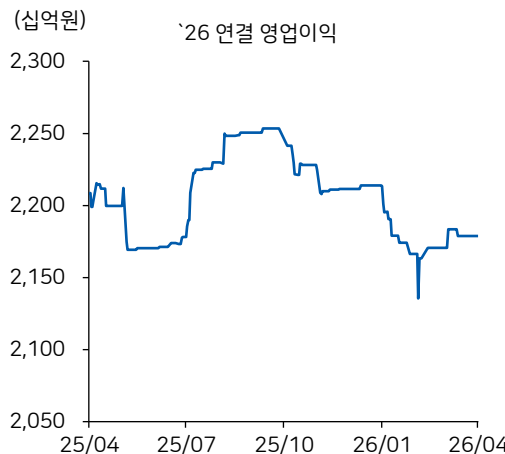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SK텔레콤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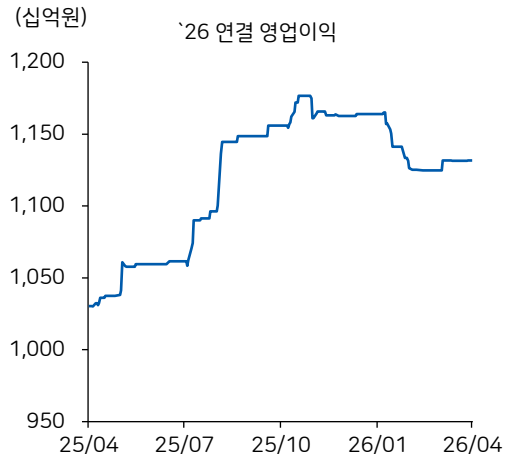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KT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LG유플러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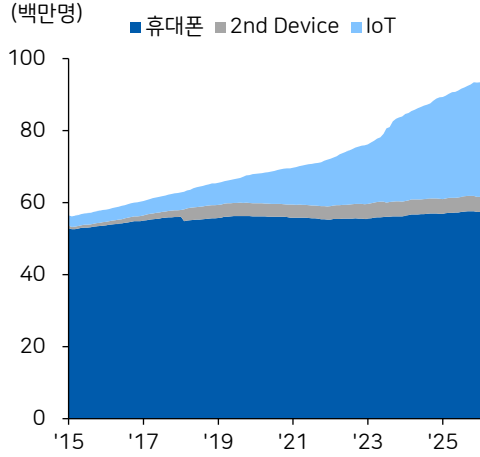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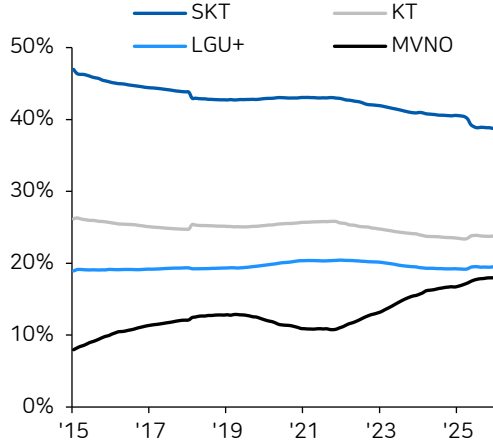


## 무선 가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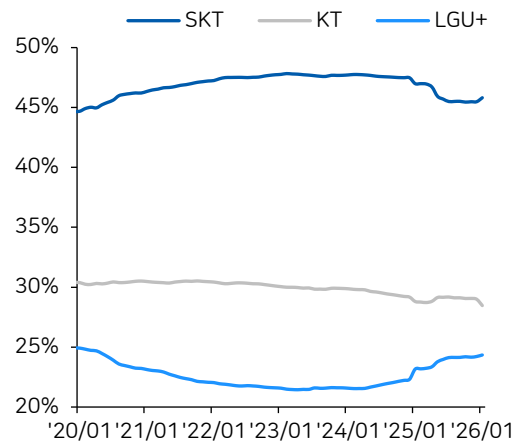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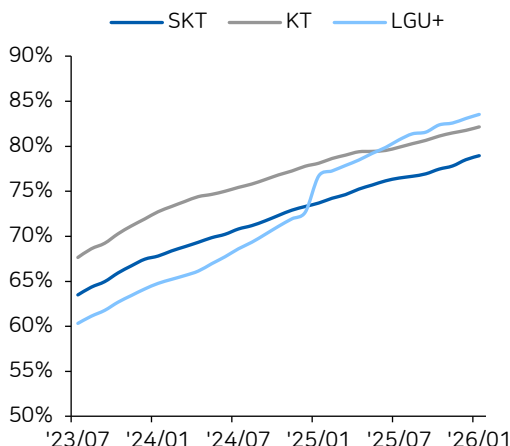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5G(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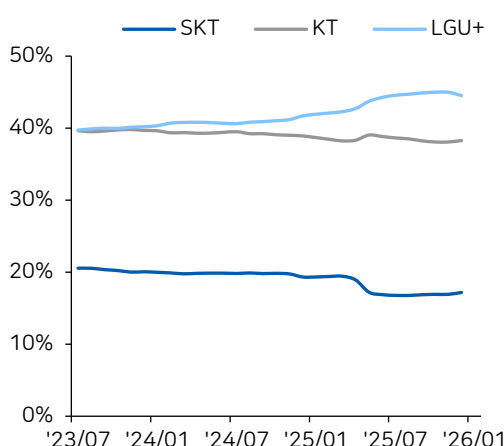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5G(핸드셋) 가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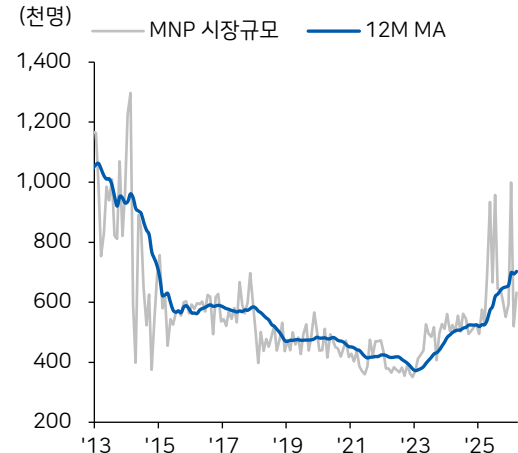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SI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사별 MVNO(핸드셋)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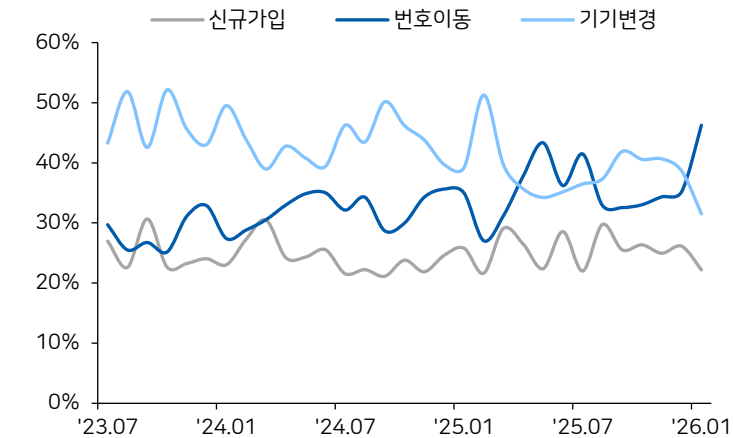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번호이동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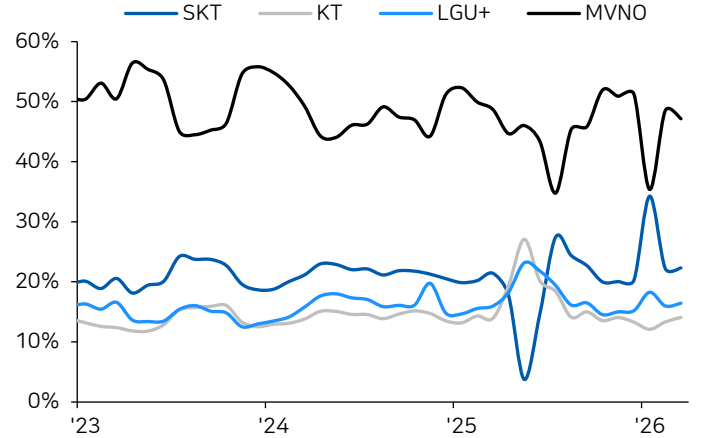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가입유형별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번호이동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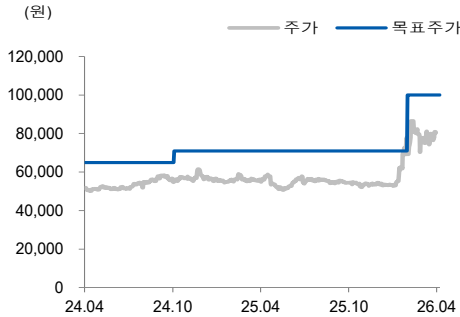


자료: KTO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 SK 텔레콤 (0176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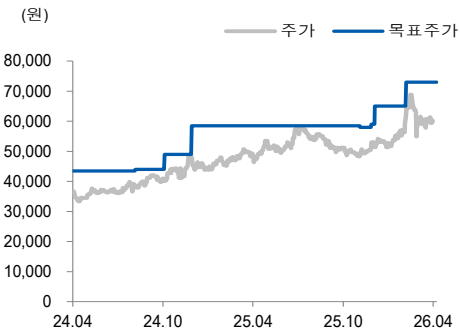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08	BUY	100,000	1년		
2026-02-06	BUY	100,000	1년		
2025-10-10	1년 경과 이후		1년	-21.04	9.72
2024-10-10	BUY	71,000	1년	-21.53	-13.38
2023-10-12	BUY	65,000	1년	-19.85	-10.1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KT (0302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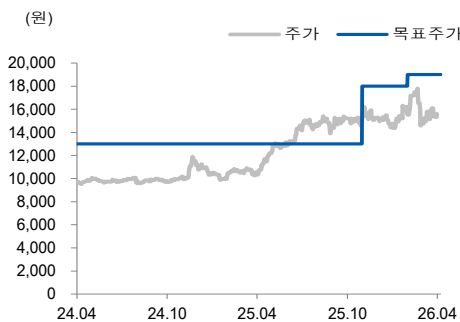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08	BUY	73,000	1년		
2026-02-11	BUY	73,000	1년		
2025-12-10	BUY	65,000	1년	-16.68	-6.62
2025-12-03	BUY	59,000	1년	-11.31	-10.00
2025-11-10	BUY	58,000	1년	-13.86	-12.59
2024-12-04	BUY	58,500	1년	-14.10	-0.17
2024-10-10	BUY	49,000	1년	-10.56	0.00
2024-08-12	BUY	44,000	1년	-8.70	-4.43
2023-10-12	BUY	43,500	1년	-17.59	-2.99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LG 유플러스 (032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08	BUY	19,000	1년		
2026-02-06	BUY	19,000	1년		
2025-11-06	BUY	18,000	1년	-14.97	-9.33
2024-10-12	1년 경과 이후		1년	-4.78	18.46
2023-10-12	BUY	13,000	1년	-23.10	-19.23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8
Hold(중립)	5.2
Sell(비중 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4-08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통신 Weekly



이승웅 통신/지주 seungwoong.lee@yuantakorea.com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이승웅)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